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1월 2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신명기 5장 12-15절

설교제목 :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출20:11) 따라서, 우리 역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쉼을 갖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시간의 구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출20:10) 쉬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쉬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생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주재권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례는 신명기에 보면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신5:15)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것에서 구원과 해방의 날을 기억하는 날로 발전했습니다. **신명기의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깨어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재(再)창조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재창조하는 사역을 ‘구속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로 소망이 없이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던 죄인들을 건져 내시사 새로운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구속사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마12:8)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의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결국 구약의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지었던 죄의 사슬로 해방되고, 연약한 육신이 해방되고,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의 원천적인 힘, 믿음의 원천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5:14) 신명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례는 구원과 연관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동 즉 일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우리 편에서 구원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자체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의 주일을 구별하여 성수합니까?** 칼빈은 예수 안에서 누릴 안식의 예표로서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안식일의 교훈은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칼빈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지키되 그 날이 어느 날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꼭 주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을 통해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안식의 의미를 실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일의 근본정신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신명기 5:15을 다시 보면, 문두에 ‘너는 기억하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역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주일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은 완성되었지만, 참된 안식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구원자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하지 말라 즉 안식과 쉼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았다면, 신약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마란 아타’의 존재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님과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과 그분 안에서 상속받은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주간 광야와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기원과 신명기서에 기록된 안식일의 기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안식일의 핵심규례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노동하지 말라는 규례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의 노동하지 말라와 신명기에서의 노동하지 말라, 그리고 주일에 일하지 말라가 갖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신지 설명해 봅시다.
- 4)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 5)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한국교회의 전통이 주일성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성수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온전한 주일성수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